

## ‘민주적 책정, 고유권한’ 공방 해결점이 안보인다

서울 - 인상률논의, 수원과 연계 전망  
수원 - 기본입장 변화없어 협상 난항

개강 이후 전개되어온 등록금 협상은 중간고사 기간에 이르러까지 학교·학생의 이견차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 문제에 대해서 학교측은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그에 따른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대동방식에 따라 양캠퍼스의 진행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은 학생복지

투기재산 몰수, 비대위 출범  
비리의원처벌, 국민소환 주장

‘투기재산 전민몰수와 비리의원 전진 소환·파면을 위한 경희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출반식이 지난 9일 오후 3시 서울캠퍼스 공대일 동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출범식은 정치인의 재산공개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의원과 비리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소환·파면권’의 정치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대위의 건립을 선포하는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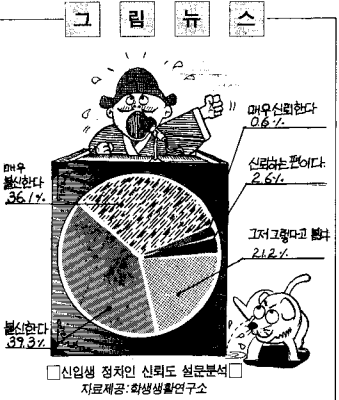
주현태(경영·2)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비대위 소개와 투쟁사태보고, 김기수(철학과학생회장·4)군의 ‘비대위의 정치의미’에 대한 발언이

있을주 투쟁계획의 난도로 끝이 났다.

식후 20여명의 학생들은 교내 앞 홍보전을 벌이고 명동성당으로 집결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투기재산 전민몰수와 비리의원 전진 소환·파면을 위한 전국학생경의대회’가 중앙대 레방장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에서 전국학생비대위 위원장 보고 청나침(경영·4)군은 “개혁정치가 실현적인 민주화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수 징집 또다시 사회격리  
“민민운동 탄압 정치술” 주장

3·6사건조치 이후 군입대가 양심수에게 새로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3·6사건 출소자 중 즉시 입대해야 하는 사람은 5백여명(일반사병 포함)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본교의 경우 1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교의 양심수 군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최동성(지리·4)군은 “사안이 시해될 뻔 수 없듯이 양심수의 군문제는 결코 시혜자원이 아니라 ‘양심수에 안락’이라고 전제하고 ‘양심수에 대한 강제 징집은 민족·민주

권)대학생의 준비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2시에 서울대 경영관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경실련 대학정책회의 회원들이 모여 기간의 활동을 평가, 초대회장을 추대하고 93년 사업계획을 채택한다.

경실련 대학생회는 합리평등운동으로, 시민과 학생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운동전개를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간고사 기간 발표

양캠퍼스 교무부는 각각 93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설정·발표했다.

시험과목을 공통교양, 제2외국어, 교직과목들은 특정한 날짜를 잡아, 계열교양만 자유선택과목은 담당교수 재량에 의해 실시되며 서울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수원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각각 기간이 설정되었다.

경세정의실천연발(이하 경실련)대학생의 준비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2시에 서울대 경영관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경실련 대학정책회의 회원들이 모여 기간의 활동을 평가, 초대회장을 추대하고 93년 사업계획을 채택한다.

경실련 대학생회는 합리평등운동으로, 시민과 학생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운동전개를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간고사 기간 발표

양캠퍼스 교무부는 각각 93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설정·발표했다.

시험과목을 공통교양, 제2외국어, 교직과목들은 특정한 날짜를 잡아, 계열교양만 자유선택과목은 담당교수 재량에 의해 실시되며 서울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수원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각각 기간이 설정되었다.

경세정의실천연발(이하 경실련)대학생의 준비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2시에 서울대 경영관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는다.

학생·민중 중심 사업방향 결의  
동총련 출범식 서울여대에서 개최

서울지역 동부지구 총학생회 연합(이하 동총련)출반식이 지난 9일 오후 6시 서울여대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변화하는 삶, 진실한 현실, 내일의 희망’이라는 기치를 걸고 출범하는 동총련의 이번 출범식은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출반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동총련 소속 10개대학의 소개와 서울여대 문예 공연이 있는 가운데 장영준(건국대 총학생회장)과 천준호(본교 총학생회장, 사학·4)군의 의장, 부의장 윤복식은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출반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동총련 소속 10개대학의 소개와 서울여대 문예 공연이 있는 가운데 장영준(건국대 총학생회장)과 천준호(본교 총학생회장, 사학·4)군의 의장, 부의장 윤복식은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출반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동총련 소속 10개대학의 소개와 서울여대 문예 공연이 있는 가운데 장영준(건국대 총학생회장)과 천준호(본교 총학생회장, 사학·4)군의 의장, 부의장 윤복식은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출반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동총련 소속 10개대학의 소개와 서울여대 문예 공연이 있는 가운데 장영준(건국대 총학생회장)과 천준호(본교 총학생회장, 사학·4)군의 의장, 부의장 윤복식은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출반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동총련 소속 10개대학의 소개와 서울여대 문예 공연이 있는 가운데 장영준(건국대 총학생회장)과 천준호(본교 총학생회장, 사학·4)군의 의장, 부의장 윤복식은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출반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동총련 소속 10개대학의 소개와 서울여대 문예 공연이 있는 가운데 장영준(건국대 총학생회장)과 천준호(본교 총학생회장, 사학·4)군의 의장, 부의장 윤복식은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출반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동총련 소속 10개대학의 소개와 서울여대 문예 공연이 있는 가운데 장영준(건국대 총학생회장)과 천준호(본교 총학생회장, 사학·4)군의 의장, 부의장 윤복식은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출반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동총련 소속 10개대학의 소개와 서울여대 문예 공연이 있는 가운데 장영준(건국대 총학생회장)과 천준호(본교 총학생회장, 사학·4)군의 의장, 부의장 윤복식은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앞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그루터기가 제일이야”

“아, 그러니까?”  
나무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몸통을 일구어 세웠습니다.  
열매와 가지, 몸통이까지 모두 켜 버린  
늙은 그루터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된 소년에게는  
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우리 대학주보사는  
경희인 모두에게  
‘그루터기’가 되고자 합니다.